***PRESS INFORMATION***

|  |  |
| --- | --- |
| **보도 일시** | **2024. 10. 17. 배포 시부터 보도** |
| **사진 설명** | **LS에코에너지 베트남 생산법인 전경** |
| **문의** | **김광국 과장 (02-2189-9597, 010-4306-5788 ,** [**kimgg@lscns.com**](mailto:kimgg@lscns.com)**) / 뉴스룸(**[**http://news.lscns.com**](http://news.lscns.com)**)** |
| **LS에코에너지,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 달성**  **■ 전년 동기 대비 매출 33%, 영업이익 14%, 순이익 227% 증가**  **■ 유럽·북미 시장 초고압 케이블과 랜 케이블 수출이 실적 견인**  **■ 연간으로도 역대급 실적 기대, LS전선과 협력해 신사업 추진**  LS에코에너지(대표 이상호)가 올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1~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LS에코에너지는 3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2,234억 원, 영업이익 125억 원, 순이익 84억 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매출 1,675억 원, 영업이익 111억 원, 순이익 26억 원 대비 각각 매출 33%, 영업이익 14%, 순이익 227% 증가한 수치다.  이번 성과의 주요 요인은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인 초고압 케이블과 랜 케이블(UTP) 수출 증가다. 특히 10기가급(CAT.6) 랜 케이블은 북미 건설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확대로 실적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  LS에코에너지는 LS전선과의 ‘교차판매(Cross-selling)’ 전략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초고압 케이블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지중(URD) 케이블의 UL 인증을 완료하여 북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는 "전력 수요와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초고압 케이블과 UTP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며, "고부가제품 판매 확대와 원가 절감으로 수익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LS에코에너지는 연간으로도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되며, LS전선과 협력해 유럽과 아시아에서 해저 케이블 사업을 검토하는 등 신사업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 |